

뛰어야 산다... '흥심' 잡으려는 유럽파 젊은피, 올여름 이적 모색

유럽 무대에서 뛰는 축구 국가대표들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출전 시간을 늘리기 위한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브렌트포드의 중앙 수비수 김지수는 지난 23일(한국 시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2부리그) 카이저슬라우테른으로 임대 이적했다.

'2004년생 유망주' 김지수는 지난 2023년 프로축구 K리그2 성남FC를 떠나 브렌트포드에 입단하며 유럽에 입성했다.

그는 2023 20세 이하(U-20) 아르헨티나 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으로 활약한 데 이어 세계 최고라 불리는 EPL까지 진출하며 많은 기대를 받았다.

지난 시즌 김지수는 EPL 역대 15번째 한국인 선수이자 첫 한국인 센터백으로 데뷔했지만, 주전으로 발돋움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였다.

김지수는 EPL 3경기, 리그컵 1경기,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경기까지 1군에서 총 5경기 131분을 뛰었다.

결국 김지수는 임대를 결심했고, 다음 시즌 카이저슬라우테른 유니폼을 입고 독일 무대를 누비게 됐다.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성사된 이번 임대는 김지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는 EPL에 있는 동안 출전 시간 부족으로 흥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김지수는 다음 시즌 카이저슬라우테른

EPL 브렌트포드 김지수, 독일 2부리그 임대 양현준·권혁규·홍현석도 출전 위한 이적 추진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 꾸준히 경기 출전 강조

에서 눈도장을 찍어 흥명보호 발탁을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십 셀틱에 속한 원어 양현준과 미드필더 권혁규도 변화가 필요하다.

양현준은 지난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34경기 6골 6도움을 기록했으나, 총 출전 시간은 1314분으로 경기당 약 39분에 불과하다.

현재 양현준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노리치 시티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노리치가 셀틱 원어 양현준에게 관심을 표명했다"며 "양현준은 이번 여름 이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양현준은 지난달 흥명보호에 발탁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을 함께한 경험이 있어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권혁규는 같은 리그의 하이버니언으로 임대돼 21경기 1095분을 뛰고 돌아왔지만, 새 시즌 셀틱에서 뛰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매체 '더선'은 "권혁규는 올여름 셀틱을 떠날 수 있다. 향후 몇 주 안에 팀을 옮길 가능성이 있으며, 아우스트리아 빈(오스트리아)이 영입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미드필더 홍현석도 돌파구를 찾고 있다.

홍현석은 지난해 여름 KAA 헨트(벨기에)를 떠나 마인츠에 입단했지만 주로 벤치를 달궜다.

축구 국가대표 부주장 이재성이 견제한 가운데 23경기 519분 출전에 그쳤다.

2023~2024년 동안 꾸준히 태극마크를 달았던 홍현석은 올해 한 번도 흥명보호에 승선하지 못했다.

홍현석은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낭트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프랑스 매체 '스포츠트'는 "낭트가 흥현석 임대 영입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선수도 프랑스 무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흥 감독은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꾸준히 출전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레벨이 높은 유럽에서 뛰고 무조건 활약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 3월엔 (유럽파들의) 출전 시간이

적어 많은 고심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김지수, 양현준, 권혁규, 홍현석 등 유럽

파 기대주들은 올여름 출전 시간 확보를 위한 이적으로 흥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한다. /뉴스시

양민혁 또 임대 가나... 진입 장벽 높은 토트넘 1군 데뷔

한국 축구 차세대 공격수 양민혁(19)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1군 데뷔가 쉽지 않다.

양민혁은 2024년 7월 토트넘 입단을 확정 후 K리그1 강원FC에서 뛰다가 지난해 12월 영국으로 건너가 비리그 데뷔를 준비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양민혁은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올해 1월 챔피언십(2부) 퀸스파크 레인저스(QPR)로 임대 이적했다.

양민혁은 QPR에서 정규리그 14경기에 출전해 2골을 터뜨렸다.

임대 생활을 마치고 토트넘으로 복귀한 양민혁은 지난 6일 시작된 토트넘의 프리시즌 훈련부터 합류해 구슬땀을 흘렸다.

그러나 토트넘에서 1군 진입 장벽은 생각보다 높아 보인다.

토트넘엔 한국 축구 '캡틴' 손흥민을 비롯해 히샤를리송, 데얀, 콜루엥스키, 브레넌 존슨, 마티아스 텔, 윌슨 오도베르 등 2선 자원이 넘친다.

여기에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이적료 5500만 파운드(약 1027억원)의 거액에 가나 출신 원어 모하메드 쿠두스까지 데려와 양민혁이 뛸 자리는 더 좁아졌다.

심지어 토트넘이 손흥민의 이적을 대비해 측면 자원의 추가 영입까지 고려하고 있어 양민혁이 다음 시즌 출전

QPR 임대 복귀... 프리시즌 첫 경기 벤치 지켜
최근 토트넘 1군 아닌 U-21팀에서 처음 실전 투입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 22일 토트넘의 프리시즌 첫 경기였던 레딩과의 맞대결에서도 양민혁은 벤치만 달궜다. 한 경기만으로 속단하긴 이르지만, 토마스 프랑크 감독 체제에서도 양민혁의 입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1군 경기에 뛰지 못한 양민혁은 지난 23일 팀 훈련 대신 구단 21세 이하(U-21)팀의 프리시즌 경기를 소화했다.

연령별 팀이지만, 양민혁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실전을 뛴 건 이번이 처

음이다. 영국 현지에서도 양민혁이 다음 시즌도 임대를 떠날 거로 내다보고 있다. 임대 시기는 한국 투어가 끝나는 8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즌 QPR 임대로 유럽 무대 적응을 마친 만큼, 양민혁에게도 임대로 출전 기회를 확보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

또 내년 북중미월드컵 출전을 위해서도 양민혁에게 실전 감각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뉴스시

손흥민, MLS 이적하나... "L AFC가 데려오길 원한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홋스퍼를 떠나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 FC로 이적할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에스레틱'은 24일(한국 시간) "이적 시장과 관련한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L AFC가 토트넘의 손흥민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을 향한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4~2025시즌 에이전트브 논란까지 겹쳐,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와 튀르키예 명문 페네르바체 등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L AFC도 한 차례 이적설에 휩싸인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연결됐다.

매체는 "앞서 손흥민을 향한 L AFC의 관심이 보도됐는데, 구단 측은 몇 주 내로 손흥민을 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 만큼의 진전은 없지만, 협상은 이어지고 있다"며 "L AFC 측은 손흥민이 (MLS의) 2025시즌

남은 일정과 그 이후에도 함께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L AFC는 현재 공격수가 필요하다.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가 최근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릴로 이적하면서 손흥민이 그 빈자리를 채울 거란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다.

"디에스레틱"은 "(이적이 성사된다면) 손흥민은 MLS 역사상 가장 큰 영입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손흥민은 상업적으로도 큰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 AFC에는 과거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프랑스 골키퍼 위고 율리스가 활약하고 있다.

/뉴스시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윌스톰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선 전 탁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무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무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